

또 하나의 戰線*

— 신생활사그룹의 민족일치론 비판을 중심으로 —

박종린**

〈차 례〉

1. 1922년, ‘思想的 論戰’
2. 신생활사그룹과 『週報 新生活』
3. 민족일치론과 그 비판

[국문초록]

1922년 11월 신문지법으로 발행이 허가된 『新生活』은 제10호부터 『週報 新生活』로 발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신생활사그룹은 『신생활』의 사상적 지향을 ‘사회주의’로 더욱 명확히 하고, 자신의 위상을 ‘신흥계급의 전위’로 자리매김하였다. 『신생활』제10호에 ‘民族·階級’ 특집을 구성하고, 『東明』의 민족일치론 비판을 통해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과의 논쟁, 즉 ‘또 하나의 戰線’을 형성하였다. 또한 兪鎭熙와 李赫魯가 기자로 합류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기자 증원이 아니라 신생활사그룹 구성원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동명』의 민족일치론은 식민지 조선의 당면 문제가 ‘民是’를 정하는 것이며, 모든 조선인이 ‘一致’하여 民是를 확립하고 행하면 최후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민족적 일치’는 ‘민족적 자각’에 기반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된 것이 ‘3·1운동’이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일치’가 이뤄졌고, 그를 통해 ‘민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朝鮮民是論』이 강조한 ‘발견’은 바로 ‘민족’이며, 『동명』은 ‘발견된 민족을 완성하려는 자’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민족 내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무엇보다 ‘민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이라는 레테르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선취하고자 했던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의 이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장인 것이다.

일치란 동일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한 민족 안에서도 ‘경제적 착취’에 기반한 상반된 이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해관계를 갖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한다. 이는 제국주의나 식민지나라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이 ‘민족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동명』의 민족일치론을 신생활사그룹이 비판한 핵심이다. 또한 ‘민족일치’와 함께 『동명』이 주장한 ‘民族完成’에 대해서도, 현실의 불가능을 활자로나 가능한 제국주의·침략주의·부르주아지의 ‘활자미술’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주제어] 신생활사그룹, 『新生活』, 『週報 新生活』, 『東明』, 민족일치론, 民是

1. 1922년, ‘思想的 論戰’

1929년 1월 1일부터 『朝鮮日報』지상에는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의 사회운동을 정리한 『朝鮮社會運動小史』라는 연재물이 실렸다. 필자는 화요파로 제2차 조선공산당 탄압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1928년 9월 만기 출옥한 裴成龍이었다.¹⁾ 그런데 1922년 상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이 매우 흥미롭다.

조선 사회에서의 思想上의 대립적 論戰衝突은 22년 가을 무렵부터 熾盛하게 되었으니, 『東明』·『朝鮮之光』·『新天地』·『新生活』 등 신문지법에 의한 주간·월간의 간행물이 있어 그에 의한 筆戰 혹은 연설·강연에 의한 舌戰이 치열하여 그 思想 對 思想의 투쟁적 기세는 일대 장관이었다. 이는 一部分의 사실이 아니요, 全朝鮮의의 사실이었다. 그러한 중에서도 여기에서 특필할 만한 사실은 그 사상과 주의를 충실히 선전하는 『新生活』과 『東明』 양지의 대립이었다. 그 전자가 唯物史觀의 견지에서 社會主義를 치열한 기세로 주창하고 있음에 반하여,

1) 『共産黨被告 十三人 出獄, 십륙일에 형기를 마치고』, 『東亞日報』 1928년 9월 16일, 2면. 『朝鮮社會運動小史』는 2월 12일까지 ‘15회’가 연재되었는데, 1926년 6·10만세운동까지를 다루었다. “사정에 의하여”(『朝鮮日報』 1929년 1월 13일, 3면) 연재를 못하게 되었다는 ‘謝告’와 함께 중단되었는데, 裴成龍이 『朝鮮日報』에 제직할 때 집필한 것이다(金基承, 『韓國近現代社會思想史研究』, 신서원, 1994, 44~45쪽). 裴成龍에 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223쪽 참조.

후자는 唯心論的 견지에서 古典의 民主主義를 애달게 고조하였었다. 이 民族一致·民族團結이란 표어로서 지지하던 『東明』이 그 號를 거듭함을 따라서 그 사회적 響應이 점차 박약해지는 동시에, 階級團結의 표어로서 선전하여 일반 사회의 視聽을 驚動케 하든 『新生活』은 그 號를 거듭할수록 당국의 저주를 避치 못하다가 결국 22년을 간신히 넘기자마자 곧 정지처분을 당하여 그 운명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다.

그럼으로 이 22년의 연말부터는 조선 사회에서는 그 어느 부류의 인사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본질을 알려 하였고, 차이를 알려 하였으며 조선인으로서의 그 이해득실을 말하려하였다. 여기에서 “조선민족의 취할 길이 사회주의에 있는가, 또는 민족주의에 있는가?”하는 견지에서 …… 1923년의 그것은 더욱 치열하여 거의 白熱化하였던 것이니, 22년의 이러한 준비를 갖춘 23년의 兩主義, 兩思想의 爭鬪는 실로 조선의 사상계로 하여금 한없이 분망하게 하였으며 한없이 혼란하게 한 것이다.²⁾

즉 1922년 가을 무렵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 사이에 ‘사상적 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신문지법으로 허가된 잡지의 지면을 통해 筆戰이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新生活』과 『東明』의 論戰은 특기할만하다는 것이다. 이를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와 ‘유심론에 입각한 고전적 민주주의’를 각각 선전하던 대표적인 두 잡지의 사상적 논전이라고 평가한 배성룡은, 그 이후인 1922년 말부터 식민지 조선에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의 지향과 상호 대립이 격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1922년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면에서 중요한 해였다. 국제적으로는, 태평양문제를 둘러싸고 미일의 갈등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1921년 11월 11일 개최되었던 워싱턴회의가 해를 넘겨 1922년 2월 6일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워싱턴회의에서 조선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

2) 裴成龍, 『朝鮮社會運動小史(四)- 物産獎勵와 青年黨大會』, 『朝鮮日報』 1929년 1월 6일, 6면.

다. 워싱턴회의에 참석하고 1922년 1월 13일 귀국한 『東亞日報』 조사부장 金東成은 워싱턴회의를 미·영·일이 충돌 없이 평화의 복리를享受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세계 3대 강국의 하나가 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의 독립은 당분간 절망적이나, 실력양성에 진력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³⁾

이는 비단 金東成의 개인적 견해일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의 현실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이미 1922년 초부터 일련의 사설을 통해 일제의 지배 아래서 문화향상, 경제발전, 권리신장 등 실력양성을 통한 문화운동의 전개를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이들이 ‘대동단결’⁴⁾을 빈번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⁵⁾

국내적으로는, 3·1운동의 혁명적 여진이 식민지 조선에 아직 존재하던 ‘혁명적 昂揚’⁶⁾기였다. 공산주의그룹들의 목적의식적 지도 아래 사회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동자와 농민이 직접 “노농운동을 개시”⁷⁾한 시기였다.

또한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이 급속히 맑스주의로 專一化되면서 공산주의그룹들 사이에 맑스주의 인식의 편차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논쟁이 전개되는 단계이기도 하였다.⁸⁾ 다음의 『週報 新生活』 발간사는 1922년 1월 金潤식사회장 찬반논의 이후 제 논쟁의 중심에 위치했던 신생활사그룹과 『신생활』이 처했던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

3) 朝鮮總督府 警務局, 『太平洋會議ニ對スル金東成ノ所感』, 『朝鮮治安狀況』, 1922, 167~168쪽. 金東成은 2월 6일부터 17일까지 11회에 걸쳐 『記者大會에서 華盛頓會議에』라는 글을 『東亞日報』에 연재하였다.

4) 『極東의 新時代-朝鮮人은 明察하라』, 『東亞日報』 1922년 2월 6일, 1면.

5) 박종린, 『“金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 2000, 258~259쪽.

6) 京城洋靴職工罷業, 鳳山農場小作爭議, 順天小作爭議가 대표적이다(『朝鮮社會運動略史코스』, 『思想月報』 제2권 8호, 1932.11, 29쪽).

7) 裴成龍, 『朝鮮社會運動小史(四)- 物産獎勵와 青年黨大會』, 『朝鮮日報』 1929년 1월 6일, 6면.

8)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까지의 시기는 한국 사회주의사상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기’로 규정된다. 이 시기는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본고의 대상은 그 가운데 2단계와 관련된다. 1단계는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이 수용되는 가운데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맑스주의가 급속히 주류적인 위치로 자리하는 단계이고, 3단계는 레닌주의를 수용하면서 맑스주의 인식이 심화되는 단계이다. 자세한 것은 박종린,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박종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 참조.

本紙가 창간된 후의 세월은 많지 아니한 팔개월 間이외다 미는, 그 間 경과를 爾今에 추억하여 보면 실로 많은 곤란이 있었고 甚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 원래 資本主義와 專制政治가 敵이 된 것은 물론이오, 其 外에 宗教派·教育家· 賣法者들도 敵이 되었으며, 甚하여서는 **同一한 主義와 主張으로 우리와 步調를 같이 할 同志까지도 또한 敵이 되었습니다**(강조는 인용자).⁹⁾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신생활사그룹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나 전제정치는 당연한 투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간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同一한 主義와 主張으로 우리와 步調를 같이 할 同志까지도 또한 敵이 되었습니다.”라는 서술이다. 함께 해야 할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신생활사그룹과 대립하게 된 공산주의그룹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 과정에서 태동한 신생활사그룹과 『신생활』 창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 과정에서 통일전선의 대상 문제를 둘러싸고 張德秀 등 국내 상해파 주류와 대립하던 金明植은 국내 상해파를 탈퇴한 후, 일군의 사회주의자들을 결합하여 신생활사그룹을 조직하였다.¹⁰⁾ 따라서 적어진 “同一한 主義와 主張으로 우리와 步調를 같이 할 同志”는 당대 사회주의 운동의 牛耳를 잡고 있던 국내 상해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에서 신생활사그룹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과의 투쟁뿐 아니라, 맑스주의에 대한 이해 차를 둘러싸고 다른 공산주의그룹과의 논쟁이라는 ‘二重戰線’에 직면했던 것이다.

1922년 벽두부터 전개된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는 국내외적으로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과 공산주의그룹들 사이의 투쟁뿐만 아니라, 국내 상해파와 신생활사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그룹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중첩된 성격을 갖는다.¹¹⁾ 이에 비해 1922년 상반기에 전개된 이른바 ‘사기공산당

9) 『週報 發刊에 臨하여』, 『新生活』 10, 1922.11. 4, 1쪽.

10) 자세한 것은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 2000 참조.

11)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에 대해서는 ①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사건'은 민족통일전선론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산주의그룹들 사이의 대립이었다는 점에서,¹²⁾ 즉 맑스주의 인식의 편차를 둘러싸고 전개된 공산주의 그룹들 사이의 '하나의 戰線'인 것이다.

배성룡이 언급한 『신생활』과 『동명』의 '사상적 논전'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 '사상적 논전'은 실제로는 『동명』이 주장한 민족일치론을 신생활사그룹이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신생활사그룹의 입장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과의 논쟁, 즉 '또 하나의 戰線'인 것이다.

『신생활』과 『동명』의 '사상적 논전'이 갖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專一的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논쟁의 한 주체인 신생활사그룹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週報 新生活』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크게 작용하였다.¹³⁾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련 연구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논쟁의 한 주체인 신생활사그룹과 『신생활』에 관한 연구로는 필자의 연구가 있다.¹⁴⁾ 이를 통해 '사상적 논전' 이전까지의 신생활사그룹과 『신생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논쟁의 또 다른 주체인 『동명』에 관한 연구로는 류시현과 이경돈의 연구가 있다.¹⁵⁾ 류시현은 서구 근대 사상의 수용과 '조선학' 연구의 관계를 『동명』을 통해 검토하였고, 이경돈은 민족담론 분석을 통해 1920년대 민족의식의 전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開關』과 함께 『동명』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1922년부터 1923년 사이 복잡하게 전개된 공산주의그룹 사이의 논

『역사와 현실』 38, 2000 ② 임경석, 「윤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 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2005 참조.

12) 이른바 '사기공산당사건'에 대해서는 임경석, 「1922년 상반기 제 서울 사회단체들의 분류와 그 성격」, 『史林』 25, 2006 참조.

13) 최근 재단법인 아단문고가 소장하고 있던 『週報 新生活』 제10호와 제15호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였다. 그런데 본고의 주요한 분석 대상인 『週報 新生活』 제10호의 경우, 어떤 이유인지 원자료의 8쪽과 24쪽이 누락된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 원자료의 열람에 도움을 준 아단문고 박천홍 실장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4)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림』 49, 2014.

15)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 2007; 이경돈, 「1920년대 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 23, 2005.

쟁과 공산주의그룹과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 사이의 투쟁 속에서 『신생활』과 『동명』의 '사상적 논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검토한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19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동명』과 『주보 신생활』 지상에서 전개된 민족일치론과 관련된 제반 논의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족일치론 비판과 관련된 주 텍스트인 『주보 신생활』제10호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신생활사그룹의 활동을 정리한다. 그리고 『동명』이 주장한 민족일치론의 논리 구조와 그에 대한 신생활사그룹의 비판을 상호 비교·검토한다.

2. 신생활사그룹과 『週報 新生活』

1922년 1월 15일 『新生活』 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신생활사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신생활사는 경영과 재정은 이사진이 담당하고, 『신생활』의 내용과 편집은 기자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¹⁶⁾ 이사 11명과 기자 4명으로 구성된 신생활사 멤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이는 신생활사 이사 겸 『신생활』 주필을 담당한 金明植이었다. 그는 경영과 주필뿐 아니라 이사진과 기자들의 연결고리 역할도 담당하였다.

김명식이 신생활사의 조직에 참여한 것은 1922년 초 식민지 조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김윤식사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명식은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 과정에서 통일전선의 대상과 혁명론에 대한 이견으로 국내 상해파를 탈퇴하였고,¹⁷⁾ [표 1]의 사회주의자들을 신생활사로 결합시켰다.¹⁸⁾ 신생활

16) 『朝鮮 初有의 社會主義 裁判, 新生活事件 第一回 公判』, 『東亞日報』 1922년 12월 27일, 3면; 『流暢한 辛氏의 答辯, 新生活事件 第一回 公判(續)』, 『東亞日報』 1922년 12월 28일, 3면.

17) 高麗 共產同盟의 金思國은 코민테른에 “상해파는 좌우 두 경향으로 분열됐다. 좌익그룹의 지도자는 金明植·俞鎮熙 등으로서 공산주의 잡지 『新生活』의 지지자들이다. 우익그룹은 張德秀·李鳳洙 등이 지도하는데 이들은 『東亞日報』의 지지자들이다. 『新生活』의 지지자들은 『東亞日報』의 지지자들에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보고하였다(金思國, 『보고 2-조선의 모든 공산주의 단체 상황』, 1924, 1쪽).

18) 金明植은 기자 충원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창립멤버인 辛日鎔과 『週報 新生活』에 참여한 俞鎮熙는 모두 金明植의 소개로 『新生活』의 기자가 되었다(『朝鮮 初有의 社會主義 裁判, 新生活事件

사 내의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신생활사그룹이 조직된 것이다.¹⁹⁾

〈표 1〉 신생활사 기자진²⁰⁾

성명	생년	출신지	직책	경력	비고
金明植	1890	전남 제주	이사 겸 주필	와세다대학 / 조선노동공제회 평의원, 조선청년회연합회 집행위원, 『東亞日報』 논설반원, 사회혁명당, 고려공산당(상해파) 국내간부 / 신생활사 필화 사건 관련	松山, 솔피, 擎山
辛日鎔	1894	전북 부안	기자	경성의학전문 / 전주청년구락부 총무, 신인동맹회 / 신생활사 필화 사건 관련	赤笑生, 赤咲 ²¹⁾
鄭栢	1899	강원 김화	기자	휘문고보 / 『曙光』 편집원, 관동학우회 지육부장, 서울청년회 / 민중사	路草生, 路草, 갈가풀
李星泰	1901	전남 제주	기자	휘문고보 중퇴 / 『독립신문』 기자 / 민중사	성태生, RST

『신생활』은 1922년 3월 창간되었지만 “號마다 벽돌집을 축조하여 독자에게 막심한 미안을 끼치는 동시에, 이도 부족하여 당국으로부터 최후 처분을 행한다는 추상같은 경고를 受하였으며²²⁾라는 기술처럼, 발행이 순탄하지 못했다. 창간호부터 ‘치안방해’ 혐의로 ‘발매 금지’ 처분을 당하여,²³⁾ “67頁雜誌에 20頁을 削除하고 16種 記事에 8種을 不通²⁴⁾한 상태의 임시호가 발행되었다.²⁵⁾ 『신생활』의 발행 상황을 정리한 다음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 『신생활』은 9호가 발행된 6개월 동안 3회에 걸친 ‘발매 금지’와 ‘압수’를 당하였다.

第一回 公判, 『東亞日報』 1922년 12월 27일, 3면.

19) 『週報 新生活』 이전의 신생활사그룹과 『新生活』에 대해서는 ①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계편」, 『역사와 현실』 38, 2000 ②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림』 49, 2014 참조.

20)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림』 49, 2014, 78쪽.

21)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에는 鄭栢의 異名으로 기술되어 있다(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431쪽). 그러나 ‘赤笑生’과 ‘赤笑’는 辛日鎔이 『新生活』에서 사용하였던 異名이다.

22) 『週報 發刊에 臨하여』, 『新生活』 10, 1922.11. 4, 1쪽.

23) 『新生活 創刊號 押收』, 『東亞日報』 1922년 3월 9일, 2면.

24) 『新刊紹介』, 『東亞日報』 1922년 3월 18일, 4면.

25) 『『新生活』 임시호 광고』, 『東亞日報』 1922년 3월 16일, 1면.

〈표 2〉 『新生活』 발행 상황(제1~9호)

호수	출간일	발행 형태	발행 유무	쪽수	편집·발행인	발행소	인쇄소
1	1922. 3.11 1922. 3.15	旬刊	발매 금지 입시호	72	白雅惠	신생활사	한성도서 주식회사
2	1922. 3.21		발행	40			
3	1922. 4. 1			46			
4	1922. 4.11		압수				
5	1922. 4.22		발행	52			
6	1922. 6. 1 1922. 6. 5	月刊	발매 금지 입시호	158			
7	1922. 7. 5		발행	158			
8	1922. 8. 5			176			
9	1922. 9. 5			174			

* 출전 : 『新生活』제1호~제3호, 제5호~제9호, 1922 ; 『東亞日報』192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생활』의 마지막 월간호인 제9호가 발행된 것은 1922년 9월 5일이다. 그런데 제10호, 즉 주간호로 발행된 『週報 新生活』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11월 4일에야 발행되었다.²⁶⁾ 그렇다면 그 2개월 동안 신생활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생활』을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⁷⁾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신생활』은 이전과는 달리 정치와 시사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신생활』은 출판규칙의 적용을 받아 발행되었다.²⁸⁾ 이는 출판법에 의한 원고검열을 피하기 위해, 편집·발행인을 신생활사의 이사이자 연희전문학교 교수인 白雅惠(Arthur L. Becker)이 담당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6) 『新生活』 10, 1922.11. 4, 1쪽.

27)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2년 9월 12일자로 『朝鮮之光』·『新天地』·『開闢』과 함께 『新生活』의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을 허가하였다(『雜誌 四種 許可』, 『東亞日報』 1922년 9월 16일, 2면).

28) 『『新生活』의 運命, 遂히 發行禁止를 命令』, 『朝鮮日報』 1923년 1월 10일, 3면.

전술한 바와 같이 신생활사는 이사진이 경영을 담당하고, 신생활사그룹이 『신생활』의 편집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생활사가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로 『신생활』을 ‘신창’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이사진과 신생활사그룹의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신생활사그룹은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을 계기로 『신생활』의 성격과 지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신생활』이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되게 되자, 신생활사의 운영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편집·발행인의 교체이다. 종래 白雅惠를 대신하여 신생활사의 이사이자 사장인 朴熙道가 『신생활』 제10호부터 편집·발행인을 담당하였다. 편집·발행인의 교체는 치병을 주장하는 목사 金益斗의 행적을 미신이라고 비판한 金明植의 글을 둘러싸고 전개된 기독교와의 논란도 영향을 미쳤지만,²⁹⁾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 발행인 경우 조선인이 발행인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³⁰⁾

둘째, 자본금의 증자이다. 이는 『신생활』의 발행 형태를 旬刊에서 週刊으로 변경한 것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다.³¹⁾ 종래 25,000원이던 자본금을 40,000원으로 증자하고, 합자회사를 새로 조직하였다.³²⁾ 인쇄소 啓文社를 매수하여 신생활사 인쇄부를 설치하고 주간 발행에 대비한 것도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이었다.³³⁾

셋째, 이사진과 기자진의 증원이다. 재정과 관련하여 李鍾元이 이사로 합

29) 논란이 된 글은 ‘金明植, 『金益斗의 迷妄을 論하고 基督教徒의 覺醒을 促하노라』, 『新生活』 6, 1922'이다. 『新生活』 구매금지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黃海老會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계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金明植의 글이 기독교 교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新生活』의 편집·발행인인 白雅惠의 사임을 주장하였다(『牧師의 決議로』, 『每日申報』 1922년 9월 13일, 3면; 『黃海老會 自意에』, 『東亞日報』 1922년 9월 17일, 3면; 『發行人 辭職은』, 『東亞日報』 1922년 9월 23일, 3면).

30) 식민지 조선에서 잡지를 발행하는 경우 조선인에게는 신문지법과 출판법이 적용되었고, 조선인이 아닌 자에게는 신문지규칙과 출판규칙이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鄭晉錫, 『韓國言論史』, 나남출판, 1990, 309~312쪽 참조.

31) 『週報 新生活』 제10호 광고, 『東亞日報』 1922년 10월 22일, 1면.

32) 『新生活 事業 擴張』, 『東亞日報』 1922년 10월 18일, 3면.

33) 『開業廣告』, 『新生活』 10, 1922.11. 4, 17쪽.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漢城圖書株式會社의 인쇄소를 이용하여 『新生活』을 발행하였다. 啓文社는 1921년 3월 서적상 高彥相이 朝鮮博文館의 인쇄소를 인수하여 설립한 인쇄소이다(『啓文社 大擴張』, 『東亞日報』 1921년 3월 26일, 3면).

류하면서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되었다.³⁴⁾ 또한 기자로 俞鎭熙와 李赫魯가 합류하였다. 이들의 합류는 단순한 기자의 증원이라기보다는 신생활사그룹 구성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³⁵⁾ 새로 합류한 두 사람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신생활사그룹이 『신생활』 제10호에 기명으로 게재한 15편의 글 가운데 유진희와 이혁로가 각각 7편과 2편을 집필하고 있다.

<표 3> 증원된 신생활사 기자진

성명	생년	출신지	직책	경력	비고
俞鎭熙	1893	충남 예산	기자	경성의학전문 / 『共濟』 편집위원, 사회혁명당, 고려공산당(상해파) 국내간부 / 신생활사 필화 사건 관련	無我, 蕪我真希, 芽
李赫魯	1888	서울	기자	구국단 / 무산자동지회 / 사회주의자동맹	李聖, 步星

신생활사의 운영 변화와 함께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생활』의 성격과 지향성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신생활』은 창간과 함께 “① 新生活을 提唱함 ② 平民文化의 建設을 提唱함 ③ 自由思想을 鼓吹함”³⁶⁾을 ‘主旨’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신사상의 소개와 민중문예의 연구, 그리고 사회현상에 대한 비평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³⁷⁾

『신생활』은 특히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신사상의 소개를 통한 ‘자유사상의 고취’를 강조하였다. 신생활사그룹이 『신생활』을 통해 가

34) 『社告』, 『新生活』 10, 1922.11. 4, 17쪽. 李鍾元의 정확한 경력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황해도 載寧青年會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아(『載寧青年會 續報』, 『東亞日報』 1920년 6월 9일, 4면), 지역적인 연관으로 신생활사에 참여한 듯 하다. 종래 신생활사의 조선인 이사 9명 가운데 7명이 황해도 출신이다(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람』 49, 2014, 76쪽).

35) 俞鎭熙와 李赫魯의 합류를 “우리의 陣容을 일층 整齊(강조는 인용자)하게 된 것은 우리로 보아서 같이 기뻐하는바”라고 언급하고 있다(『週報 發刊에 臨하여』, 『新生活』 10, 1922.11. 4, 1쪽).

36) 『新生活 主旨』, 『新生活』 1, 1922, 69쪽.

37) “新生活을 提唱하며 自由思想의 鼓吹와 平民文化의 建設을 主眼으로 하여 新思想을 紹介하며 民衆文藝를 研究하고 一般 社會現狀을 批評하여 吾人의 所感을 披瀝하는 同時에 民衆의 要求와 熱望과 憧憬에 反響板이 되고져 하는 것이외다.”(『編輯을 마치고』, 『新生活』 1, 1922, 71쪽)

장 적극적으로 소개한 ‘신사상’은 맑스주의였다. 맑스 외에 사회적 아나키스트인 크로포트킨과 개인적 아나키스트인 슈티르너, 그리고 사회주의자인 라파르그와 모리스 등도 소개하였다. 신생활사그룹이 크로포트킨과 슈티르너, 그리고 라파르그와 모리스 등의 사상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그것이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인 현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기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신생활사그룹은 『週報 新生活』을 발간하면서 ‘主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本報는 현대사상의 최고 기조인 **社會主義**(강조는 원문)의 입지에서 세계적으로
 又は 현하 조선에서 수시 발생하는 **社會問題 及 政治問題**(강조는 원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소개·비평·보도하는 것을 主旨로 하고, 전진하려는 조선 유일의
 언론기관이외다. 本報는 …… **新興階級의 前衛**(강조는 인용자)를 作하려 합니다.³⁹⁾

즉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언론기관인⁴⁰⁾ 『주보 신생활』은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고 보도하는 것을 ‘주지’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보 신생활』의 발간과 함께 자신들의 사상적 지향을 ‘신사상’이나 ‘자유사상’이라는 언설에서 ‘사회주의’로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다음의 <표 4>는 『신생활』 제10호의 목차를 정리한 것인데, 『주보 신생활』의 사상적 지향을 잘 보여준다.

38)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림』 49, 2014, 88~89쪽.

39) 「『週報 新生活』 제10호 광고」, 『東亞日報』 1922년 10월 22일, 1면.

40) 李赫魯도 코민테른에 『新生活』을 “社會主義者들이 가진 唯一한 輿論機關”(李赫魯·李括, 「朝鮮內地事情報告」, 1923. 3, 17쪽)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4〉 『新生活』 제10호 목차

면	필자	제목	비고
1		週報 發刊에 臨하야	* 발간사
		이것이 民族一致냐 屠獸場門 압하지	* 만평
	크로포트킨	勞動者의 宣言	
	芽	低能兒의 誤算	유진희
2	俞	所謂 民族一致와 活字魔術	유진희
	길가풀	豆滿江가에서	정백
3	슬피	民族主義와 코쓰모포리타니즘(-)	김명식
		意志의 統一	
4	李赫魯	民族主義와 푸로레타리아運動 - 『東明』의 朝鮮民是論을 駁함	
	赤日	前夜	
5		時事短評	
	公民	난봉歌와 權愛羅	나경석
6		熱風急馳	* 국제 정세
		勞動團體의 消息	
7		收穫의 秋! 鬭爭의 秋!	* 국내 소작쟁의
		日本 各地의 小作爭議	
		麥茶葱湯	
8	俞	所謂 物價調節과 無産階級	유진희
	俞	所謂 生活改善과 無産階級	유진희
		資本主義의 平等	* 만평
9	星泰	國際運動小史 ⁴¹⁾	이성태
10	맑스 / 辛日鎔 譯	賃傭勞動과 資本	
		關稅復活과 朝鮮農民	
11	俞	쏟세리슌에 關한 一考察	유진희
	辛	無産階級の 外交	신일용
12	李廷允	分명한 事實에 對한 想涉君의 誤謬 ⁴²⁾	
		붓방아	

13		私立檢事局	
	公民	赤貧中白貧	나경석
14	레닌 / 蕪我 譯	革命에 對한 幻滅	유진희
	赫魯	胡餅錄	이혁로
		國粹議員의 大膽	
15	赤咲	民衆文豪 쇼-리키-의 面影	신일용
16	코-리끼 / 蕪我 譯	小說 信仰과 主義	유진희
17	신생활사	광고	* 社告
18~24			

* 출처: 『新生活』 제10호, 1922.

『신생활』 제10호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이다.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맑스의 『임금노동과 자본』과 레닌의 혁명에 관한 글, 그리고 국제운동사에 대한 글을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다.⁴³⁾ 또한 볼셰비즘과 고리키에 대한 글도 게재하고 있다.⁴⁴⁾ 이런 사회주의에 대한 글로 구성된 『주부신생활』은 노동계급의 전위임을 표방한 신생활사그룹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준다.

또 하나의 특징인 민족주의와 관련해서는, ‘民族·階級’ 특집의 지면 구성이 주목된다. ‘民族·階級’ 특집은 2면부터 4면까지 유진희, 김명식, 이혁로

41) 李星泰는 이 글이 “레도라氏의 『社會主義의 思想과 行動』을 抄譯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星泰, 『國際運動小史』, 『新生活』 10, 1922.11. 4, 9쪽).

42) 이 글은 ‘日, 東京에서’ 투고했고, 말미에 ‘未完’으로 표시되어 있다(李廷允, 『分명한 事實에 對한 想涉君의 誤謬』, 『新生活』 10, 1922.11. 4, 12쪽). 이 시기 李廷允은 일본 도쿄에서 ‘전진사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전진사 그룹’』, 『역사와 현실』 118, 2020, 232~235쪽 참조).

43) 모두 ‘발매 금지’되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新刊紹介』란에 의하면 辛日鎔이 번역한 『賃傭勞動과 資本』은 제12호에 제2회가 게재되었고, 이성태가 번역한 『國際運動小史』는 제11호와 12호에 제2회와 3회가 연재되었다(『新刊紹介』, 『東亞日報』 1922년 11월 13일, 4면; 『新刊紹介』, 『東亞日報』 1922년 11월 20일, 4면).

44) 辛日鎔이 집필한 『民衆文豪 쇼-리키의 面影』은 제11호와 12호에 제2회와 3회가 연재되었다(『新刊紹介』, 『東亞日報』 1922년 11월 13일, 4면; 『新刊紹介』, 『東亞日報』 1922년 11월 20일, 4면).

의 글로 구성되었는데, 『東明』의 민족일치론 비판 특집호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한 주간 첫 호에서 신생활사그룹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일치론 비판을 통한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과의 논쟁, 즉 ‘또 하나의 戰線’을 형성한 것이다.

『주보 신생활』은 “萬國의 無産階級은 團結하라!”라는 기치아래 “資本主義·軍國主義를 擁護하며 支持하려는 一切의 文化를 排斥”하는 ‘新思想의 權威’와 ‘反逆者의 先驅’임을 자처하였다.⁴⁵⁾ 또한 『주보 신생활』의 발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勞動者의 威力, 新興階級의 天下, 이것은 우리의 判定하는 바이오, 우리가 確信하는 바이오다. 망명중의 맑스, 倫敦의 비참한 생활에도 이 判定을 捨치 아니하였으며, 망명중의 레닌, 제네바의 窮迫한 생활에서도 이 確信을 棄치 아니하였습니다. …… 우리 階級의 前衛가 되는 동시에 毅然히 敵의 급소를 衝코자 합니다.⁴⁶⁾

즉 ‘신흥계급의 천하’, 즉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자신들의 ‘判定’이요 ‘確信’이며, 자신들은 그 ‘전위’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은 신생활사그룹이 『주보 신생활』의 발간을 계기로 자신들의 지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신생활』 제10호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주보 신생활』의 엠블럼이다. 『週報 新生活』이란 題號의 좌우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엠블럼은 두 손을 맞잡은 프롤레타리아와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공산당선언』의 마지막 구절인 “Proletarians of all countries, Unite!”와 “萬國의 無産階級



〈그림 1〉 『週報 新生活』 엠블럼⁴⁷⁾

45) 『週報 新生活』 제10호 광고, 『東亞日報』 1922년 11월 7일, 1면.

46) 『週報 發刊에 臨하여』, 『新生活』 10, 1922.11. 4, 1쪽.

47) 『新生活』 10, 1922.11. 4, 1쪽; 『週報 新生活』 제10호 광고, 『東亞日報』 1922년 11월 7일, 1면; 『新生活』 15, 1922.12.23, 1쪽.

은 團結하라!”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이다. ‘신흥계급의 전위’로 자신의 위상을 자리매김했던 신생활사그룹의 사상적 지향성을 강렬하게 보여 준다 하겠다.

〈표 5〉 『週報 新生活』 발행 상황(제10~16호)

호수	출간일	발행 형태	발행 유무	쪽수	편집·발행인	발행소	인쇄소	
10	1922.11. 4	週刊	발행	24	朴熙道	신생활사	신생활사인쇄부	
11	1922.11.11		발매 금지					
12	1922.11.18							
13	1922.11.28							
14	1922.12.13							
15	1922.12.23		발행	12				
16	1923. 1. 1 1923. 1. 8		압수 임시호					

* 출전: 『新生活』 제10호·제15호, 1922 ; 『東亞日報』1922~1923.

앞의 〈표 5〉는 『주보 신생활』의 발행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⁴⁸⁾ 전술한 바와 같이 『신생활』은 제9호까지 3회에 걸쳐 ‘발매 금지’와 ‘압수’를 당했다. 그러나 매체의 지향성을 명확히 한 『주보 신생활』은 제16호까지 7개 호 가운데 5회의 ‘발매 금지’와 ‘압수’ 등으로 겨우 2개 호만 발행되었다. 그만큼 『주보 신생활』의 발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호’⁴⁹⁾인 제11호는 ‘신생활사 필화사건’에 휘말리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⁵⁰⁾ 제12호 또한 그 여파로 ‘발매 금지’되었다.⁵¹⁾ 그리고 제13호와 제14호

48) 현재 실물 확인이 가능한 것은 『新生活』 제10호와 제15호이다.

49) 『週報 新生活』 제11호 광고, 『東亞日報』 1922년 11월 13일, 3면.

50) 『新生活』發賣 禁止, 『東亞日報』 1922년 11월 16일, 2면. 『新生活』 제11호에서 ‘필화사건’에 관련된 글은 「露西亞革命5週年紀念」과 「5年前 今日을 回顧함」이다. 두 글의 필자는 모두 金明植이다 (『流暢한 辛氏의 答辯, 新生活事件 第1回 公判(續)』, 『東亞日報』 1922년 12월 28일, 3면). 『新生活』 제11호는 露西亞革命5週年紀念, 勞農露西亞의 政治組織, 5年前 今日을 回顧함, 露西亞革命史概觀,

는 연이어 ‘압수’되었다.⁵²⁾『주보 신생활』은 제16호까지 발행되었는데,⁵³⁾ 1923년 1월 8일자로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⁵⁴⁾

『신생활』은 ‘주간’으로 변경된 이후 반복적인 ‘발매 금지’와 ‘압수’로 인해 매체로써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를 예상했던 듯 신생활사 그룹은 『주보 신생활』의 발간사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昔日의 『라인新聞』⁵⁵⁾의 최후 운명을 연상하여 孤寂과 悲哀를 吶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弔喪한 적도 없지 아니하였습니다.”⁵⁶⁾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검열 정책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주보 신생활』의 지향성에 대한 우회적인 선언이었다.

이 시기 필화사건의 화를 벗어난 신생활사그룹의 李星泰, 鄭栢, 李赫魯 등은 『신생활』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⁵⁷⁾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게 되자, 후속 잡지로 월간 『新社會』를 발행하려 하였지만 그 또한 실패하였

『東明』의 朝鮮民是論을 駁함(二), 國際運動小史(續), 民衆文豪 쇼-리키의 面影(二), 內外時事, 露國革命에 關聯된 人物 及 其他 插畫, 私立檢事局, 小說 등으로 구성되었다(『新刊紹介』, 『東亞日報』 1922년 11월 13일, 4면).

- 51) 『兩雜誌 發賣 禁止』, 『東亞日報』 1922년 11월 20일, 2면; 『新生活의 筆禍』, 『每日申報』 1922년 11월 21일, 2면. 『新生活』 제12호에서 ‘필화사건’에 관련된 글은 ‘民族運動과 無産階級の 戰術’과 ‘自由勞動大會趣旨書’이다. 전자의 필자는 兪鎮熙이다(『流暢한 辛氏의 答辯, 新生活事件 第1回 公判(續)』, 『東亞日報』 1922년 12월 28일, 3면). 『新生活』 제12호는 民族運動과 無産階級の 戰術, 『東明』의 朝鮮民是論을 駁함(三), 민족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二), 미국독립전쟁의 무산자적 관찰, 國際運動小史(續), 賃傭勞動과 資本, 民衆文豪 쇼-리키의 面影(三), 時事短評, 私立檢事局, 勞動消息, 小說 등으로 구성되었다(『新刊紹介』, 『東亞日報』 1922년 11월 20일, 4면). 11월 13일 東京에서 ‘전진사 그룹’이 러시아혁명 5주년기념호로 발행한 『前進』 제4호도 ‘발매 금지’되어, 11월 23일 ‘訂正 再版’이 발행되었다(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전진사 그룹」, 『역사와 현실』 118, 2020, 227쪽).
- 52) 『新生活』 13號 押收-전부 문구가 거의 다 당국의 기뢰로 압수, 『每日申報』 1922년 11월 29일, 3면; 『新生活』 又復 押收, 『東亞日報』 1922년 12월 16일, 2면.
- 53) 『新刊紹介』, 『東亞日報』 1923년 1월 8일, 4면. 『新生活』 제16호는 1923년 1월 1일 ‘압수’되어, 1월 8일 ‘임시호’가 발행되었다(『週報 新生活』 제16호 광고, 『朝鮮日報』 1923년 1월 8일, 3면).
- 54) 『週報 新生活』 遂히 發行禁止, 『東亞日報』 1923년 1월 10일, 3면; 『新生活』의 運命, 遂히 發行禁止를 命令, 『朝鮮日報』 1923년 1월 10일, 3면.
- 55) 『라인新聞』은 1842년 1월 1일 독일 쾰른에서 창간된 자유파 신문이자 헤겔 좌파 신문이다. 프로이센 정부의 계속되는 검열로 어려움을 겪다가 1843년 1월 21일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후반기에 맑스가 실질적인 편집장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엥겔스는 영국 통신원으로 참여하였다. 자세한 것은 마토바 아키히토·우치다 히로시·이시즈카 마사히데·시바타 다카유키 엮음, 오석철·이신철 옮김, 『맑스사전』, 도서출판 b, 2011, 115~116쪽 참조.
- 56) 『週報 發刊에 臨하여』, 『新生活』 10, 1922.11. 4, 1쪽.
- 57) 李赫魯·李栢, 『朝鮮內地事情報告』, 1923. 3, 17쪽.

다.⁵⁸⁾ 계속되는 노력들이 실패하자 이들은 1923년 9월 사상운동 단체인 民衆社를 조직하고, 맑스주의 원전을 번역·출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⁹⁾

3. 민족일치론과 그 비판

1) 『東明』의 민족일치론

3·1운동으로 복역 중이던 崔南善은 1921년 10월 18일 기출옥하였다.⁶⁰⁾ 이후 최남선은 秦學文과 함께 『青春』의 연장선으로 잡지 『東明』의 발행을 기획하였다. 『동명』은 1922년 5월 27일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이 허가되었는데, 최남선 監輯·진학문 主幹 체제로 ‘신문 겸 잡지’를 지향하였다.⁶¹⁾

『동명』은 1922년 9월 3일 창간되었다. 그러나 그를 주도한 최남선은 창간호 발행 이전부터 『동명』의 지향성을 명확하게 공표하였다. 1922년 8월 24일자 『東亞日報』1면의 2/3를 차지하는 광고에서, 『東明』同人 代表 崔南善의 명의로 발표한 다음 글은 『동명』의 지향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 준다.

현하의 조선인은 오직 한 가지 職務가 許與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최근 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發見된 民族’을 ‘一心一致’로 ‘完成’하는 일이다. 일체의

58) 『月刊『新社會』發行, 『신생활』대신에, 『東亞日報』1923년 1월 27일, 3면; 『新社會』發行, 『신생활』후신으로, 『朝鮮日報』1923년 1월 27일, 3면. 『新社會』는 출판법에 입각한 잡지로 신청하였는데, 창간호는 원고 상태로 입수되었다(『檢閱中에 押收, 『東亞日報』1923년 3월 18일, 3면). 『東亞日報』에 실린 李星泰의 『中間階級の 利己的 運動-社會主義者가 본 物産獎勵運動』도 원래 『新社會』에 실릴 원고였다(李星泰, 『中間階級の 利己的 運動-社會主義者가 본 物産獎勵運動』, 『東亞日報』1923년 3월 20일, 4면).

59) 『民衆社 組織』, 『東亞日報』1923년 9월 1일, 3면. 民衆社는 신생활사그룹의 후계 조직으로, 朱鍾健을 대표로 李星泰·鄭栢·崔昌益 등이 참여하였다. 자세한 것은 朴鍾隣, 『1920년대 전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맑스주의 원전 번역-『임금 노동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51, 2009, 303~307쪽 참조.

60) 『崔南善氏 假出獄』, 『東亞日報』1921년 10월 19일, 3면.

61) 『雜誌『東明』許可』, 『東亞日報』1922년 6월 8일, 2면; 『『東明』광고』, 『東亞日報』1922년 8월 24일, 1면.

步武가 오직 이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과 일체의 희망이 도무지 이로써 現實될 것을 확신하는 吾人은 風潮야 如何하던지 趨向이야 如何하던지 ‘民族完成’을 위하여 아직 동안 일체의 기회를 운용하며, 일체의 정력을 集注하지 아니치 못합니다. 이로써 自勵하고 이로써 勸他 하여 무한한 생명전개의 제일보, 이상실현의 第一線삼아 發見된 民族을 完成하려는 자외다. …… 금일 吾人의 專心致志할 것은 民族的 完成이 당면 第一件事임을 信認합니다. …… 吾人이 이제 언론계에 따로 一旗幟를 세움은 오로지 이 信念이 眞義를 천하에 呼唱하려함이외다. …… 朝鮮民族一致完成의 標的을 향하여 매진하겠습니다.⁶²⁾

즉 『동명』의 위상을 ‘발견된 민족을 완성하려는 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리고 최남선은 『동명』의 지향성을 창간호부터 표지에 슬로건으로 표기하였다.

다음의 <그림 2>는 『동명』창간호부터 사용된 표지와 슬로건이다. 표지 좌우의 “朝鮮民族아 一致합시다.”와 “民族的 自助에 一致합시다.”라는 슬로건은 『동명』의 지향성이 무엇인지 간결하고 강렬하게 보여준다.



<그림 2> 『東明』 표지의 슬로건⁶³⁾

62) 『『東明』 광고』, 『東亞日報』 1922년 8월 24일, 1면.

63) 『東明』 1, 1922. 9. 3, 1쪽. 이 표지의 슬로건은 『東明』 제28호(1923. 3.11)부터 “내일 내, 오늘 일은 오늘”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주장과 슬로건으로 표기된 『동명』의 지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총론적 성격의 글이 바로 「朝鮮民是論」이다.

〈표 6〉 「朝鮮民是論」 연재 상황

회	호수	출간일	제 목	비 고
1	1	1922. 9. 3	摸索에서 發見까지로	
2	2	1922. 9.10	아아 貴重한 發見」	
3	3	1922. 9.17	發見에서 發見으로(上)	
4	4	1922. 9.24	發見에서 發見으로(中)	
5	7	1922.10.15	發見에서 發見으로(下の 一)	
6	8	1922.10.22	發見에서 發見으로(下の 二)	
7	9	1922.10.29	發見에서 發見으로(下の 三)	
8	10	1922.11. 5	發見에서 發見으로(下の 四)	
9	11	1922.11.12	發見에서 發見으로(下の 五)	
10	12	1922.11.19	發見에서 發見으로(下の 六)	
11	13	1922.11.26	發見에서 發見으로(下の 七)	

* 출처: 『東明』 제1호~제13호, 1922

앞의 〈표 6〉은 『동명』에 실린 「조선민시론」의 연재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조선민시론」은 『동명』 제5호와 제6호를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연재되었다.⁶⁴⁾ 필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東明』同人 代表 崔南善' 명의로 발표한 글과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과 대체로 매호의 첫 번째 글로 배치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최남선이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은 먼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

64) 『東明』에는 「朝鮮民是論」의 연재 중단에 대해 “今號 休載”(『東明』 14, 1922.12. 3, 3쪽)나, “今回 休載”(『東明』 15, 1922.12.10, 3쪽; 『東明』 16, 1922.12.17, 3쪽) 또는 “本號 休載”(『東明』 17, 1922.12.24, 3쪽)라는 공지가 계속 실렸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나 해명 없이 「朝鮮民是論」의 연재는 11회로 종결되었다.

오늘날 우리 당면의 大問題는 民是를 一定합니다(강조는 인용자). 民族精神을 集注한 一焦點이 무엇임과 民族能力을 傾倒할 一大事가 무엇임을 살피고 깨닫고 깊이 인식함이 現時 下 오인의 莫緊莫急한 重大問題이다. …… 금일 오인이 참으로 一致하여 자기의 立地를 正覺하고, 자기의 前路를 正觀하고, 자기의 方針을 正決하고, 자기의 努力을 正用하는 如何가 우리의 운명을 심판하는 根本條件입니다. 살아날 一條 路가 있는데 능히 찾아서 곧장 가는 如何가 우리로 하여금 信地로 도달하게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오, 이 길로 꼭 가는 것이 民是를 行함이오, 이 길로 감으로 하여 우리 최후 소망이 자연성취 됨이 民是의 確立 및 그 一致로 말미암아 당연히 結就되는 果報이다.⁶⁵⁾

즉 민족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민족의 능력을 傾注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즉 ‘民是’를 정하는 것이 식민지의 조선인이 당면한 중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조선인이 ‘一致’하여 살아 날 길을 찾아 곧바로 가느냐의 여부가 ‘信地’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바로 살아 날 길로 가는 것이 民是를 행함이라는 것이다. 民是를 확립하고, 민족이 일치하여 民是를 행하면 최후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즉 최남선은 조선 민족이 ‘一致와 自助의 旗幟’를 높이 들고 ‘民族完成運動’을 전개함으로써, ‘更生 朝鮮’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⁶⁾

이러한 논리 구조에서 ‘민족적 일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민족적 일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역사를 보건대 우리가 조선인이라 자각을 가지게 된 시초는 이천여 년 전에 漢 이란 이민족이 국토 한반관에 독립한 집단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외다. …… 本有한 同族을 內로 단결하여 他來한 異民을 外로 制服하는 것이 당시 그들에게 最高

65) 『摸索에서 發見까지-朝鮮民是論(1)』, 『東明』 1, 1922. 9. 3, 3쪽.

66) 『『東明』 광고』, 『東亞日報』 1922년 9월 5일, 1면; 『『東明』 광고』, 『東亞日報』 1922년 9월 12일, 1면; 『『東明』 광고』, 『東亞日報』 1923년 1월 25일, 3면.

唯一 事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민족이란 의식이 가장 미약한 原始態로 萌動하였습니다. …… 진실로 진실로 유일한 民族의 一致였습니다. 제도보다 인물보다 병기보다 재물보다, 또 이 모든 것을 통합한 대세력보다 놀랍게 큰 위력을 가진 것이 ‘一致協力’인 것을 사실로써 배웠습니다.⁶⁷⁾

즉 ‘민족적 자각’이 ‘민족적 일치’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족적 자각은 漢四郡의 설치와 그에 대항한 투쟁 과정을 통해 싹트었다는 것이다.⁶⁸⁾ 이러한 ‘민족적 자각’을 통한 ‘민족적 일치’라는 논리 구조와 관련하여, 최남선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3·1운동’이다. 최남선은 3·1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민족 전체의 무의식적 일치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潛默한 가운데 뿌리가 점점 깊이 박히고 기회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한껏 팽창된 熱力은 다만 분화구가 될 곳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밀리고 밀리다가 탁 터진 것이 그 宣言이란 것이외다. …… 자각의 종합적 표현이외다. 그런데 그 중심 사실된 것은 완전한 의미상으로 ‘民族’이란 것을 추구하는 ‘生活意志(Wille Zum Leben)’외다. 온갖 민족적 결핍감이 이 선언을 통하여 放散形으로 표상된 것이 三一事件의 역사적 의미외다. 몰랐던 ‘民族’을 알려 하는 - 잃었던 ‘民族’을 찾으려 하는 - 부서진 ‘民族’을 반죽하려 하는 - 지질린 ‘民族’을 일으키려 하는 - 파문힌 ‘民族’을 꼬집어내려 하는 조선인의 更生熱이 다른 방도가 모조리 杜塞되었기 때문에 겨우 터져 있는 구멍을 뚫고 발표된 것이 그것이외다. 假死的 시험의 마당에서 아곳아곳하게 ‘民族’을 발견하고 - 生脈이 그 속에 뛰고 활기가 그 가에 서렸음을 발견하고서 부활의 頌歌를 九霄에 사무치게 부르짖은 것이 그것이외다. 발견의 기쁨이 坦率하게 나타날 적에 “내 이렇게 살겠다.”하는 선언이 문뜩 나왔습니다. 살겠다!

67) 『發見에서 發見으로(上)-朝鮮民是論(3)』, 『東明』 3, 1922. 9.17, 3쪽.

68) 『朝鮮民是論』의 이후 내용은 우리 역사에서 ‘민족적 자각’과 관련된 사례와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글은 최남선의 『朝鮮歷史通俗講話』이다. 『朝鮮歷史通俗講話』는 역사가 ‘민족적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집필된 것으로, 『東明』 제3호부터 제28호(1923. 3.11)까지 2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朝鮮民是論』과 함께 『東明』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다.

살겠다! 여기 ‘民族’이 있구나 하였습니다.⁶⁹⁾

자기의 처지에 눈을 뜬 조선인은 무서운 형세로 자기옹호를 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萎縮沈廢하던 사회의식도 一件 事를 因하여 부쩍부쩍 솟아났으며, 그렇게 支離滅裂하던 민족행위도 이 一段事를 위하여 차차차차 뭉치었습니다. 가르치는 이 없이 민족적 자각이 골고루 생기고, 이끄는 이 없이 민족적 일치가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⁷⁰⁾

즉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일치’의 종합적 표현인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민족을 추구하는 ‘삶에의 의지(Wille Zum Leben)’를 보여 준 다는 것이다. 또한 3·1운동을 통해 사회의식과 민족행위가 증대되면서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일치’가 이뤄졌고, 그를 통해 ‘민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남선이 『조선민시론』을 통해 강조한 ‘발견’은 바로 ‘민족’인 것이다. 그리고 『동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발견된 민족을 완성하려는 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조선민시론』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는 종래 조선의 문제가 “氣骨없고 능력없고 염치없고 생명의 창조가 없는”⁷¹⁾ 타락했던 권력계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최남선은 민중의 自助와 一致가 있었다면, 國亡으로 가지 않고 민족적 성취인 근대 국가 건설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민중에게 민족의 긍정적 측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을 권력계급과 대비시키고, 둘의 분리와 대비를 강조한다. 그러나 최남선이 주장하는 민중은 그 범주의 모호성으로 인해 규정하기 어렵다.

〈그림 3〉은 『동명』에 실린 「아모 것 보담 압서는 일이 民族的 一致」란 만평인데, ‘조선민족’의 ‘민족적 일치’가 무엇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동명』의 민족일치론을 잘 보여준다. 민족 내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

69) 『摸索에서 發見까지-朝鮮民是論(1)』, 『東明』 1, 1922. 9. 3, 4쪽.

70) 『摸索에서 發見까지-朝鮮民是論(1)』, 『東明』 1, 1922. 9. 3, 3쪽.

71) 『摸索에서 發見까지-朝鮮民是論(1)』, 『東明』 1, 1922. 9. 3, 3쪽.



〈그림 3〉 아모 것 보담 압서는 일이 民族的一致⁷²⁾

며,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무엇보다 ‘민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남선이 종래의 권력계급을 비판하기 위해 대비시킨 ‘민중’은 하나의 언설일 뿐이다. 만평은 무엇보다 민족이라는 레테르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선취하고자 했던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의 이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명』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연재물의 존재는 흥미를 끈다. 토마스 커컵(Thomas Kirkup)과 安部磯雄의 글이 대표적이다. 토머스 커컵은 미국의 사회주의자인 리처드 일리(Richard Ely)와 함께 일본의 메이지사회주의자들에게 이론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⁷³⁾ 특히 토마스 커컵의 저작은 일본과 중국에 사회주의사상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저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⁷⁴⁾ 식민지 조선에서 토머스 커컵의 저작이 번역된 것은 『東明』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社會主義要領」이란 제목으로 10회에 걸쳐 연재된 것이 유일하다.⁷⁵⁾ 번역은 북풍과 사회주의자인 三民, 즉

72) 「만평-아모 것 보담 압서는 일이 民族的一致」, 『東明』 6, 1922.10. 8, 3쪽.

73) 守屋典郎, 『日本マルクス主義の歴史と反省』, 合同出版, 1980, 3쪽.

74) 토머스 커컵의 저작 가운데 *A history of socialism*(Thomas Kirkup, *A history of socialism*, BiblioLife, 1892)은 일본에서 堀利彦이 주도한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 연구지 『社會主義研究』에 초역되어 게재되었고, 중국에서는 毛澤東이 자신에게 맑스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준 세 권의 책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박종린, 「1910년대 제일유학생의 사회주의사상 수용과 ‘김철수그룹」, 『사림』 30, 2008, 163~164쪽 참조.

金鍾範이 담당하였다.⁷⁶⁾

安部磯雄은 1901년 片山潛, 木下尙江, 河上清 등과 함께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정당인 社會民主黨에 발기인 6인 가운데 1인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리처드 일리의 저작인 *Socialism and Social Reform*의 영향을 받아 사회민주당의 「선언서」를 집필한 인물이다.⁷⁷⁾ 『東明』 제16호와 제17호에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이란 글이 연재되었다.⁷⁸⁾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社會主義要領」과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이 모두 ‘今日の知識’이라는 코너에 연재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 두 글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이나 선전의 차원이 아니라, 당대에 알아야 할 ‘지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東明』 주도층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75) 「社會主義要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1장 緒論(도마쓰 커킵 原著, 三民 抄譯, 『社會主義要領』, 『東明』 6, 1922.10. 6, 14쪽) ② 2장 舊時的 經濟的 變革(『東明』 7, 1922.10.15, 12쪽) ③ 3장 現制度의 起源(『東明』 8, 1922.10.22, 9쪽) ④ 4장 社會主義의 濫觴(『東明』 9, 1922.10.29, 9쪽) ⑤ 5장 初期의 社會主義(『東明』 10, 1922.11. 5, 9쪽) ⑥ 6장 1848年 以後의 社會主義, 7장 獨逸의 社會主義(『東明』 11, 1922.11.12, 8쪽) ⑦ 7장 獨逸의 社會主義(續), 8장 카알 맑스(『東明』 12, 1922.11.19, 8쪽) ⑧ 8장 카알 맑스(續)(『東明』 13, 1922.11.26, 8쪽) ⑨ 10장 인터내셔널運動, 11장 其他의 社會主義 各派(『東明』 14, 1922.12. 3, 7쪽) ⑩ 11장 其他의 社會主義 各派(續)(『東明』 15, 1922.12.10, 8쪽) 「社會主義要領」의 경우 전체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장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생략이 아니라, 단순한 ‘誤植’이다. 번역의 저본인 『社會主義とは何ぞや』의 경우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トーマス・カーカツ 著, 島中雄三 訳, 『社會主義とは何ぞや』, 文化学会出版部, 1921).

76) 「社會主義要領」은 島中雄三의 일역본을 번역한 것이다(トーマス・カーカツ 著, 島中雄三 訳, 『社會主義とは何ぞや』, 文化学会出版部, 1921). 그리고 『社會主義とは何ぞや』는 島中雄三이 토머스 커킵의 두 책(① Thomas Kirkup, *An inquiry into socialism*, Longmans, Green & Co., 1887 ② Thomas Kirkup, *A history of socialism*, BiblioLife, 1892)을 재구성한 것이다.

77) 安部磯雄에 대해서는 片山哲, 『安部磯雄伝』, 毎日新聞社, 1958; 安部磯雄 著, 山泉進 編集·解題, 『安部磯雄』, 論創社, 2003 참조.

78)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1. 社會改造案으로써의 社會主義, 2. 都市經營의 困難(一記者 譯,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 『東明』 16, 1922.12.17, 8쪽) ② 3. 何故로 土地는 騰貴한가, 4. 土地私有로부터 일어나는 不公平, 5. 土地의 私有와 人類의 自由, 6. 넓은 意味의 土地(『東明』 17, 1922.12.24, 8~9쪽) 이 글은 『解放』 1921년 12월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一記者 譯,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 『東明』 16, 1922.12.17, 8쪽).

2) 신생활사그룹의 민족일치론 비판

유진희·김명식·이혁로의 글로 구성된 『신생활』 제10호의 ‘민족·계급’ 특집은 「조선민시론」을 중심으로 한 『동명』의 주장에 대한 신생활사그룹의 비판이다.⁷⁹⁾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특집으로 인해 『신생활』 제10호는 『東明』 비판 특집호’를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생활사그룹의 비판에 대해 최남선 등 『동명』 주도 그룹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⁸⁰⁾ 그것은 ‘신생활사 필화사건’ 등의 영향으로 『신생활』이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발매 금지되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동명』 주도 그룹이 확인할 수 있었던 『신생활』은 제10호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⁸¹⁾

따라서 배성룡이 서술한 바와 같은 『동명』과 『신생활』의 ‘사상적 논전’은 실제 전개되지 않았다. 『동명』의 ‘주장’과 그에 대한 신생활사그룹의 ‘비판’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1922년 벽두부터 김윤식사회장을 둘러싸고 서로의 사상적 지향과 현실인식 차이를 표출했던 공산주의그룹과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명』의 ‘주장’과 신생활사그룹의 ‘비판’이 갖는 의미는 그 자체로 ‘사상적 논전’으로 불릴 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생활사그룹이 『동명』의 주장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兪鎮熙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79) 신생활사그룹이 비판한 『東明』의 주장은 「朝鮮民是論」 전체가 아니라 『新生活』 제10호가 출간된 1922년 11월 4일 이전, 즉 『東明』 제9호(1922.10.29)까지의 내용이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民是論」의 핵심적인 논지는 대부분 앞부분인 제1~3회에 집중되어 있다.

80) 『新生活』 제10호에는 東明社의 ‘1/16면」 『新生活』 週報 창간 축하 광고가 게재되어 있고(『東明社 광고』, 『新生活』 10, 1922.11. 4, 21쪽), 『東明』 창간호에는 新生活社의 ‘1/8면」 『東明』 창간 축하 광고가 실려 있다(『新生活社 광고』, 『東明』 1, 1922.9.3, 18쪽). 이후 양측은 상대방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81) 『東明』에 대한 『新生活』의 비판 글이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게재되어 있음은, 실물 확인이 가능한 제10호와 목차 확인이 가능한 제11호와 제12호의 「新刊紹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朝鮮民是論을 비판」의 대상으로 했던 李赫魯의 글(「民族主義와 푸로레타리아運動-『東明』의 朝鮮民是論을 駁함」)은 최소 3회 동안 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만 『新生活』 제10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발매 금지로 인해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에도 동일했을 것이다.

방금 조선에 있어 가장 선명하게 民族一致를 絶唱하는 신문이나 잡지가 있다하면 그것은 爲先 『東明』에 第一指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東明』이 착취계급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것을 唱導하는지 혹은 이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없이 다만 熱에 띄운 詭語를 중얼거리는 계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東明』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임을 毋論하고 掠奪群의 陣門을 고수하는 용감한 태도는 자타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⁸²⁾

즉 신생활사그룹이 『동명』의 주장을 비판한 핵심은 민족일치론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 착취계급을 옹호하기 위해 민족일치론을 가장 소리 높여 주장하는 매체가 바로 『동명』이었기에, ‘민족·계급’ 특집까지 구성하여 『동명』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신생활사그룹이 민족일치론을 비판한 이유는 다음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위대한 민족주의운동자 등의 최대의 무장은 역사의 배경이다. …… 一致와 團結이 생명인 동일한 감정과 관념은 다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생활의 境線에서만 소유할 것이다. 그 이해가 상이하고 그 생활의 내용이 相違한 계급이 다만 동일한 민족, 동일한 역사, 동일한 언어, 동일한 관습 등 역사적 鋼索으로써 一致團結함을 행기 難한 것은 근세의 민중운동이 此를 증명하는 바이다.⁸³⁾

한 민족 안에 搾取群 즉 掠奪로써 또 掠奪로야 비로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一群과 被搾取群 즉 掠奪을 받는 것으로써 또 掠奪을 받아야 비로소 빈궁한 생활을 영위하는 一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빈궁하여야 하나는 부유하고, 하나가 鼓腹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餓死를 하는 전연히 利害가 背馳하는 兩大群의 세계가 한 민족 안에 있는 사실은 그 민족의 정치적 독립 유무를 毋論하고 罔연하게 있는 사실이다.⁸⁴⁾

82) 俞, 「所謂 民族一致와 活字魔術」, 『新生活』 10, 1922.11.4, 2쪽.

83) 李赫魯, 「民族主義와 푸로레타리아運動-『東明』의 朝鮮民是論을 駁함」, 『新生活』 10, 1922.11.4, 4쪽.

84) 俞, 「所謂 民族一致와 活字魔術」, 『新生活』 10, 1922.11.4, 2쪽.

즉 일치란 동일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인데, 한 민족 안에서도 ‘경제적 착취’에 기반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나 식민지나라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이 ‘민족일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동일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만을 강조하는 『동명』의 민족일치론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다음의 <그림 4>는 『신생활』에 실린 「이것이 民族一致냐, 屠獸場門 압히지!」란 만평인데, 민족일치론에 대한 신생활사그룹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림 4> 이것이 民族一致냐, 屠獸場門 압히지!⁸⁵⁾

85) 「만평-이것이 民族一致냐, 屠獸場門 압히지!」, 『新生活』 10, 1922.11.4, 1쪽.

“利害는 몰라. 그저 服從만 해.”라고 설교하는 종교인과 채찍을 휘두르며 자신의 의지대로 ‘無産階級’을 묶어 끌고 가는 ‘紳士階級’.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利害가 같아야 團結이 되지!!’란 『신생활』의 멘트.

이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족’이라는 레테르를 앞세워 프롤레타리아트를 끌고 가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비판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결국 비판의 초점은 추상적인 ‘민족일치’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르주아지와 『동명』이 앞장서서 선전하고 있던 민족일치론인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선인’이 아니라, 조선인 내부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계급의 존재인 것이다.

신생활사그룹의 그런 인식을 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그림 5>이다. 이는 『신생활』에 실린 『民族一致』란 만평인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를 ‘民族一致’란 미명 아래 묶어 두려하지만, 계급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두 계급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곳을 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民族一致⁸⁶⁾

86) 「만평-民族一致」, 『新生活』 15, 1922.12.23, 1쪽.

신생활사그룹은 이러한 민족일치론이 근대에 변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대로인, ‘맹목적 일치와 희생의 강요, 편견과 배타’⁸⁷⁾가 본질인 원시적 민족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적 일치’라는 미명 아래 제국주의 전쟁에 동의한 것을 이러한 민족과 민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적시하였다.⁸⁸⁾

신생활사그룹은 ‘掠奪主義의 宣傳者’인 『東明』이 ‘民族一致’와 함께 주장한 ‘民族完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東明』의 所謂 “무슨 理想, 무슨 主義를 毋論하고 모두 民族完成을 한 후의 말입니다.”하는 말은 너무 麥浪한 詭語이다. 민족이 완성(이 용어가 말이 될는지 아니 되는지는 別문제로 하고: 원문)되는 理致가 있다하면 그는 모두 一切의 擄取 事實이 소멸한 후의 말이다. …… 아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마술이오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마술이라면, ‘民族一致’와 ‘民族完成’은 확실히 마술이다. …… 『東明』 紙上에서 본 民族一致는 물과 불이 합하여 진다는 이야기와 목을 베어 놓은 비둘기가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가 활자 위에서 才操를 부릴 뿐이다. 그러면 이것은 爲先 ‘活字魔術’이라고 불러 둘 수밖에 없다.⁸⁹⁾

즉 ‘更生 朝鮮’을 완성하기 위해 조선 민족이 ‘一致와 自助의 旗幟’를 높이 들고 전개하는 ‘民族完成運動’⁹⁰⁾은 ‘민족일치’라는 주장과 함께 현실의 불가능을 활자로 가능하게 하는 제국주의·침략주의·부르주아지의 ‘활자마술’ 즉 희망이자, ‘헛소리’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87) 李赫魯, 『民族主義와 푸로레타리아運動-『東明』의 朝鮮民是論을 駁함』, 『新生活』 10, 1922.11. 4, 4쪽.

88) 金明植은 이를 민족주의자가 “軍國主義, 帝國主義, 侵略主義의 走狗가 됨을 辭讓치 아니하는 것이 暴露”(슬피, 『民族主義와 코쓰모포리타니즘(-)』, 『新生活』 10, 1922.11. 4, 3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89) 兪, 『所謂 民族一致와 活字魔術』, 『新生活』 10, 1922.11.4, 2쪽.

90) 『『東明』 광고』, 『東亞日報』 1923년 1월 25일, 3면; 『『東明』 광고』, 『東亞日報』 1922년 9월 5일, 1면; 『『東明』 광고』, 『東亞日報』 1922년 9월 12일, 1면.

1922년 11월 초 신생활사그룹은 『週報 新生活』을 통해 『東明』의 민족일치론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그 해 벽두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 과정에서 국내 상해파의 문화계몽운동론과 통일전선의 대상 문제로 대립했던 신생활사그룹의 입장에서, 투쟁의 대상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명』으로 특화되었지만 그 투쟁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신생활사그룹은 ‘무산계급의 전위’를 자임하면서, 혁명적 민족주의자들과의 결합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동명』의 민족일치론은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신속히 척결해야 할 주장에 다름이 아니었다. 신생활사그룹이 민족일치론을 비판한 논리 구조는 1923년 물산장려논쟁 과정에서 국내 상해파의 ‘免死運動’ 주장을 비판하는 논리로 다시 제기된다.⁹¹⁾

91) 박종린,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물산장려논쟁」, 『역사와 현실』 47, 2003, 83~84쪽.

■ 참고문헌

1. 자료

『新生活』 『東明』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思想月報』

金思國, 『보고 2-조선의 모든 공산주의 단체 상황』, 1924.

李赫魯·李括, 『朝鮮內地事情報告』, 1923.

朝鮮總督府警務局, 『太平洋會議ニ對スル金東成ノ所感』, 『朝鮮治安狀況』, 1922.

トーマス・カーカツプ 著, 島中雄三 訳, 『社會主義とは何ぞや』, 文化学会出版部, 1921.

Thomas Kirkup, *A history of socialism*, BibliLife, 1892.

Thomas Kirkup, *An inquiry into socialism*, Longmans, Green & Co., 1887.

2. 단행본

金基承, 『韓國近現代社會思想史研究』, 신서원, 1994.

박종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

鄭晋錫, 『韓國言論史』, 나남출판, 1990.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마토바 아키히토·우치다 히로시·이시즈카 마사히데·시바타 다키유키 엮음, 오석철·이신철 옮김, 『맑스사전』, 도서출판 b, 2011.

守屋典郎, 『日本マルクス主義の歴史と反省』, 合同出版, 1980.

安部磯雄 著, 山泉進 編集·解題, 『安部磯雄』, 論創社, 2003.

片山哲, 『安部磯雄伝』, 毎日新聞社, 1958.

3. 논문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 2007.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친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 2000.

_____,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물산장려논쟁』, 『역사와 현실』 47, 2003.

_____,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사회주의사상 수용과 ‘김철수그룹’』, 『사람』 30, 2008.

_____, 『1920년대 전반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맑스주의 원전 번역-『임금 노동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_____,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新生活』』, 『사람』 49, 2014.

_____,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전진사 그룹’』, 『역사와 현실』 118, 2020.

- 이경돈,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 23, 2005.
- 임경석, 「윤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 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2005.
- _____, 「1922년 상반기 재 서울 사회단체들의 분류와 그 성격」, 『史林』 25, 2006.

The Other Front

– On the New Life Group’s Critique of the Theory of National Unity –

Park, Jong Rin*

New Life, which was allowed to be published after the newspaper law’s passage in November 1922, was issued as *New Life Weekly* from the issue no.10. Then, the New Life group identified itself as the ‘vanguard of emerging class,’ clarifying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New Life* towards socialism. The 10th issue of *New Life* featured ‘Nationality and Class,’ and ‘the other front’ with bourgeois nationalist groups was formed through the critique of the theory of national unity of *Dongmyung*. On the other hand, the journalists, Yoo Jin Hee and Lee Hyeok Ro, joined the group, which showed the expansion of New Life group.

The theory of national unity of *Dongmyung* holds that the immediate problem in colonial Joseon is to identify the national ideology since they can achieve their final purpose if all Joseon people unite to establish their ideology and put it in practice. ‘National unity’ is based on ‘national awareness’ and ‘3 · 1 movement’ should be emphasized in this sense. ‘National awareness’ and ‘national unity’ was achieved through 3 · 1 movement, through which the ‘national identity’ was ‘discovered.’ Therefore, the ‘discovery’ in the theory of Joseon national ideology refers to the ‘nation itself’ and *Dongmyung* is regarded as ‘one who wants to complete the nation discovered.’ Here, class interests within the nation are not considered and the ‘nation’ is more important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Hannam University, professor

than anything else. This shows that the bourgeois nationalist groups try to bring the nation to the fore to achieve their own interests.

Unity should be based on the same interests. Within a nation, there are an exploiting class and an exploited class, bourgeoisie and proletariat, which have different class interests based on ‘economic exploitation.’ This is regardless of its political situation of imperialism or colonialism, and thus there are bourgeoisie and proletariat in colonial Joseon. *Dongmyung* just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bourgeoisie by claiming ‘national unity.’ In this sense, the New Life group criticized the theory of national unity of *Dongmyung*. On the other hand, the group criticized the ‘national completion’ of *Dongmyung* as just the ‘type magic’ of imperialism · aggressiveness · bourgeoisie, making the impossible of reality possible in print.

Key words : New Life Group, *New Life*, *New Life Weekly*, *Dongmyung*, Theory of National Unity, National Ideology